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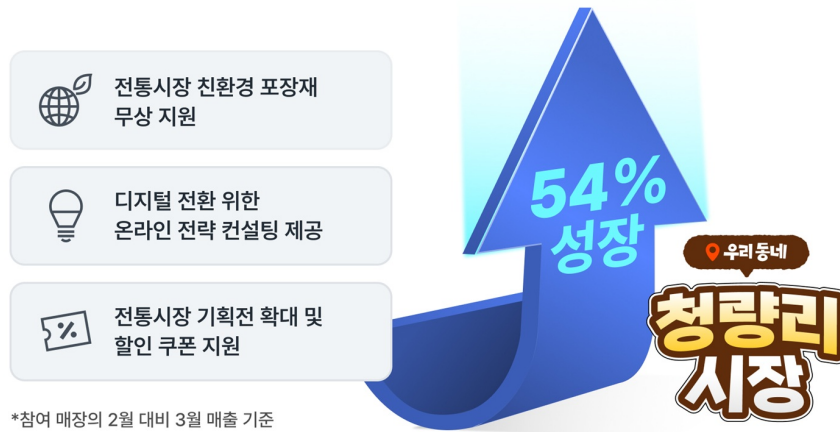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이츠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 통했다 “청량리 시장 상인 매출 한 달 새 54% ↑”

2026. 4. 21.

coupang eats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로 지역경제 활성화

쿠팡이츠 전통시장 기획전 청량리 전통시장 매출 약 54% 성장



- 3월 한 달간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운영 성과 상인들 “늘어난 주문 체감”
- 쿠팡이츠 “기획전·쿠폰 효과 확인 다음 기획전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서 진행”

2026. 04. 21. 서울 - 쿠팡이츠가 지난 3월 시작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프로젝트의 1호 시장인 청량리 전통시장 매출이 한 달 새 50% 이상 뛰었다. 지역 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의 우수 먹거리 등을 적극 알린 결과 시장 상권이 활성화되는 결과로, 쿠팡이츠는 앞으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운영할 방침이다.

쿠팡이츠는 21일 “지난 3월 한 달간 청량리종합시장 상점 100여 곳이 참여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 결과, 행사 기간 주문 기준 입점 매장의 쿠팡이츠 매출이 2월 대비 약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은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우수 상품을 알리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됐다. 청량리시장을 1호 대상으로 선정해 통닭 골목과 족발·보쌈 골목, 순대국·해장국 골목 등 대표 먹거리 매장은 물론 반찬류, 신선한 과일·채소, 제철 수산물 등 장보기 매장까지 폭넓게 참여시켰다.

쿠팡이츠 상점 마케팅팀 관계자는 “고객들이 시장 전체 상점 구성을 쿠팡이츠 기획전 화면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획전 기간 동안 와우회원 대상 2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전통시장 먹거리 및 장보기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당 혜택이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한식 디저트를 청량리시장에서 판매하는 ‘오화당’은 “전달 대비 매출이 5배 상승하며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평소 보다

고객 주문이 늘어나면서 버터찰떡을 비롯한 다양한 한식 디저트를 고객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청량리시장에서 23년째 한식집을 운영 중인 ‘윤가네’는 “주문량과 매출이 늘었고, 쿠폰 이벤트가 매장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족발을 판매하는 ‘고향족발’은 “날이 따뜻해지는 3월은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지만 주문량 증가로 매출이 2배 가까이 뛰었다”고 했다.

청량리 전통시장 상인들은 “오랜 기간 시장 현장에서만 판매를 이어온 상황에서 온라인 맞춤형 상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 사진 촬영 지원 등 디지털 전환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이 강화됐다”고 입을 모았다.

쿠팡이츠는 이번 기획전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동네 전통시장’ 기획전을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한 다른 전통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쿠팡이츠는 “다음 기획전은 대구 지역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지역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기획전과 프로모션을 통해 전통시장 상생 모델을 지속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규 쿠팡이츠서비스 대표는 “청량리시장에서 확인한 기획전 성과는 전통시장도 온라인을 통해 충분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각 지역 전통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쿠팡이츠는 전국상인연합회와 ‘전통시장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기획전을 비롯한 포장서비스 중개이용료 무료 지원과 친환경 봉투 60만개 제공 등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